

멀고도 가까운



요즘 우리사회는 새로운 가치관,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등이 전통적으로 전해온 그것들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가 무시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기도 하며 혼재되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즉 수천년 동안 이어오던 농경사회가 몇백년의 산업사회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고 또 몇 십년의 자동화와 정보화에 의해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하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토론을 한다. 또 전세계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뿐만아니라 가정에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컴퓨터안에서 은행일을 처리하고 시장에 가지 않고도 쇼핑을 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컴퓨터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메스컴을 통해 자주 듣는 가상도시, 가상기업, 가상대학, 전자상거래, 전자주민카드, 원격 의료진단 등의 낯선 말들이 이미 우리의 삶속에 많은 부분 실현되어 있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화사회의 길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둘러보고 부족하거나 소홀점을 찾아내어 시급히 보완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우리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첫째, 지속적인 국민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정보화에 걸맞는 국가, 기업, 개인의 의식 개혁을 통해 건전한 정보윤리의식을 토착화시켜야 하며, 셋째,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술자립을 추구하여 기술 중속의 문제점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올바른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며,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화사회의 길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둘러보고 부족하거나 소홀점을 찾아내어 시급히 보완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우리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첫째, 지속적인 국민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정보화에 걸맞는 국가, 기업, 개인의 의식 개혁을 통해 건전한 정보윤리의식을 토착화시켜야 하며, 셋째,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술자립을 추구하여 기술 중속의 문제점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올바른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며,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및 홍보활동

윤리의식이 건전하게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보화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PC가 보급되고 업무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보화라는 말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이후 직장에서나 가정, 사회, 문화예술 부문까지 정보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소도시 주민, 농어촌 주민, 가정 주부 등 정보화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존재한다. 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는 직장인들의 정보화 마인드도 정보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그룹웨어'가 실현되어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PC를 워드프로세서나 전자우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정보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정보문화확산운동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에 앞장서야 하며,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이용 범위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단계별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정보통신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힘써야 한다. 지역사회단체나 기업, 언론매체 등에서도 정부, 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국민홍보 및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

정보화교육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환경에 걸맞는 윤리의식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순기능과 함께 그 역기능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개인 신상정보의 외부 유출, 온라인 범죄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화에 대한 윤리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유출이나 온라인 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정보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기존의 윤리의식과 정보화시대의 윤리의식이 건전하게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보화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경쟁력을 위한 정보기술 투자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경쟁력은 정보기술력과 정보활용 능력에 달려 있다. 누가 정보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 우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산설비, 응용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을 포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자립도가 미약한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 종속 현상을 보다 빨리 극복하고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첫째 미래의 시장 수요 및 기술예측에 근거하여 아직 개발되지 못한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하여 기술선점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아직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약한 틈새시장의 공략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은 자본과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기업간의 연대 및 대학 연구소와 공동 개발, 기술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정보화사회라는 광활한 신천지 앞에 서 있고 누구든지 이 대륙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는 한발 먼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 탐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멀고도 가까이 있는 정보화사회, 이제는 외면할 수 없고 남에게 떠맡길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정보화사회 건설은 이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모두에게 던져진 우리의 생존과제이기 때문이다.

한전정보네트웍(주)
사장 최대용